

W_F_719

애기구덕 엎은 할아버지

2019년 7월 16일,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변득춘(여, 1938년생, 서귀포시 천지동)

- 서귀포시 서홍동 출생으로 결혼 후 중문에서 살다가 현재는 천지동에서 48년째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할아버지가 자기 제삿날 아들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기 재우느라 제사를 못 차린 며느리가 괘씸하여 애기구덕을 불 위에 엎어버려 손자를 죽게 해버렸다. 무덤 옆에서 자던 사람이 꿈에서 깨고 이상하다 여겨 마을에 가서 확인했는데 꿈을 꾼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.

[제보자] 제삿날은 제사 먹으려 할아버지가 오는디 할머니 산소에 간

“잖어? 가게. 저 사람도 가게.”

허난

“아이고. 저 어른만 강 옵서. 난 손님 들언 못 가쿠다.”

지나가던 사람이 그기 간 산 안에 간 누워버리니까

“손님 들어완 못 가쿠다. 저 어른만 강 옵서.”

허나네 간. 간 보나네 부엌에 낭풀떼기에 놔둔 애기구덕 놔네 흥글멍 허단 출리진 안하고, 곧 좀 들어불언. 메누리가. 잠 들어부난 제사는 못 출련, 못 출련 허나네

“아이고. 나쁜 것들.”

할머니가 갓이민 경 안햇을 건데 할아버지니까 부에가 낫어. 그 얘기를 혁 허 게 엎어된, 애기구덕을 엎어된 와 부나네. 오다

“할망, 나 간 왔어.”

허나네

“어떻 잘 출려십디가?”

허난

“아이고. 못된 것덜, 애기구덕 정지에 놓아네 흥글다네 발 범엉 그냥 자 불고

낭 볼은 와랑와랑와랑 불만 난 숨없이난, 숨없이나네 부에나네 얘기구덕 엎어된
왓어.”

게난

“아이고, 으 어른아, 으 어른아. 경허믄 됩니까. 경허믄 됩니까. 손지를 경허믄
됩니까.”

허멍 헤네. 경햇인디. 거기 앗았던 사람이 뒷날은 깨나네 간 보난 이상하다.
헤네 이 산 임자를 촛아간 거라. 촛안 그 동네 간 보난 얘기 불칸 죽엇제. 얘기
구덕 엎어부난. 불탄 죽엇제 경헤네, 허나네.

아이고, 옛날에 참 신이 잊어낫는지 없어낫는지 몰라도 게난 제사 맹질을 잘
헹 모시렌. 제사 땐 잘은 안 출려도 정성껏 헤그네 하영은 안 출려도 경허네 웃
어른 조상님을 잘 모시렌 경현 말이 난 거 닮아.

[조사자] 누구한테 들었수과? 이런 이야기.

[제보자] 옛날 우리 할무니가, 할무니가 구십구 세 난 돌아갔인디. 친정에 할무니가, 경
헨 조상님 제사 땐 잘 모셔사 텸다.

경허곡, 제삿날이는 서답 뿔양 널지 말라. 서답 줄 헤그네 널지 말라, 서답 뿔
양 널민 조상님들이 오다그네 발 걸령 넘어진덴. 게난, 제삿날 명질날은 서답 뿔
양 널지 말라.

경허멍 제사를 혈 땐 잘 모셔사 헌다. 할머니가 경 곧는 거 들어낫주.

- 핵심어: 산소, 얘기구덕(요람), 맹질(명절), 서답(빨래), 할아버지, 할망(할머니), 손지(손자),
정지(부엌)